

(2013년6월28일 진성운 금요 선생님 명강의>

<2006년 6월 18일 주일말씀>

1.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2.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본문: 잠언 6장 16-19절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밋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 주일이 지나가고 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6월 18일 주일입니다. 유럽과 시간차는 있지만 같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늘의 발길을 따라서 하늘의 감동을 주어 새로 온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면 부르시고 마음으로 부르시고 감동해서 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온 새로 온 여러분들에게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왜 교회로 향하게 했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각 나라의 여러분들 선교하느라고 수고하고 그리고 각 교회 모두 금년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도 집회들이 있고 미국은 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조상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미국도 열심히 뛰고 달리는 기독교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은사도가 집회 끝나고 계속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뛰고 그동안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도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한데 앞으로 미국도 크게 기대하니 크게 역사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중직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말씀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찬양하고 찬양 후에 설교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잠언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율 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제와 더불어 찬양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연이어서 “희망빛”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희망빛”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 나라 모두 일어나서 허리 펴고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고 보호를 하시네.” 이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하나님은 희망빛” 새섭리 새 역사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악기들이 준비 되었지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휘 단상으로 올라가겠으니 모두 악기 준비하시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음은 “하나님은 희망빛”입니다.

♪ 희망빛

이제는 모두 편히 앉아서 주일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말씀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할 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그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미워하시지만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한 주일 동안 잘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연속해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한 박자 빨리 행하지 말라. 성급한 사람은 한 박자 빨리 인생들을 행한다. 그래서 될 것도 안 되게 일을 저지르고 실수들을 한다.” 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성급한 사람들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 박자 빨리 차서 꼭 골이 들어갈 것을 못 들여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모든 하는 것들을 봐라. 너희들이 겪어보지만.”

항상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한 박자 빨리 무엇을 합니다. 급한 사람들은 한 박자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휘해도 한 박자 빨리 하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화음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박자 느려도 안 됩니다. 한 박자 빨리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한 박자 느리게 해서 맞춰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한 박자 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박자 느리게 해서 손해가기 만들고 또 느리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수고의 대가로 얻을 것을 제대로 못 얻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월드컵 경기 할 때 봤지요? 한 박자 느리게 차서, 빨리 차야 되는데 한 번 더 오른발로 주었다가 왼발로 차려고 하다가 그때 볼을 뺏기는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푹 찼으면 뺏을 것입니다. 골키퍼 앞에 불과 10미터, 8미터에서 그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박자 느리게 차는 사람, 한 박자 빨리 차는 사람은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라. 대개 게으른 사람이 한 박자 늦게 찬다. 일을 해도 한 박자 늦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을 응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이 축구할 때 봤지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응원은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공의로운 응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말을 안 들었다 하자. 그래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또 대가를 주면 안쓰럽지 않느냐? 기회가 몇 년

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열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경기에서 지면 더 이상 못하니까 구경을 하다가 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감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은 못 이긴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냥은 아모리 족속을 못 이긴다. 여호수아가 있어도. 일부를 빼내고 싸워서 이겼다.”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결국 상대편 토고 나라의 선수 한 명을 뺏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처음으로 받은 나라가 한국과 경기한 토고 나라였습니다.

“빼내고 하니까 게임이 되지 않느냐.” 빼내고 하니까 게임이 되어서 이겼습니다. 토고 나라가 교만해서 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물리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겨버린다. 너희들은 졌다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전에서도 게임이 안 되게 우리나라가 졌지 않습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생각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를 계속 다 보고 싶은데 그것 다 보고 배우려면 밤잠 못 자니까 ‘아이고, 그만 배우고 일찍 자자.’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같이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은 한 박자 빨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안 하고 싶어도 빨리 해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안 닦아서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누근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동할 때 보면, 불을 차려 나가 보면 꼭 급해서 한 박자 빨리 차서 안 들어가고 한 박자 느리게 차서 뺏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우리의 삶도 고쳐서 게으른 것은 박자를 빨리 하고, 너무 조급한 것은 느리게 해서 손해가지 않도록 하라.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지시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이 오늘 주제입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여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호와께서 마음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육질 가지니 첫째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얼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다.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못 보신다. 그런 교만한 눈들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된다.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자요, 하나님은 교만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 교만에는 사탄이 끼어 있고 사망,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꼭 끼어 있어서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하면 실패다. 교만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교만하면 사망권에 속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못 본다. 물리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니 감히. 하나님이 계신데.” 합니다. 왕 앞에 잘난 체하면 큰일납니다.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26, 27년 동안 섭리사만 끌고 오고 그 전에도 청중 속에서 많이 묻혀 봤지 않습니까? 보면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들고 섭리사에서 쫓아내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교만한 민족도 그러합니다. 교만한 민족들 조심하십시오. 으스대는 민족들, 교만한 민족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특히 한국의 북쪽 나라인 북한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요즘에 듣자 하니 무기 자랑하고 미사일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는 자도 교만에 들어갑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물리쳐 버립니다. 그 꼴을 안 보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개 나라가 무장을 다 했어도 천사 하나만 보내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천사의 위력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겠지만 명령하는 지도자를 주관해서 될 것을 안 되게 만들고 정신을 혼란시켜 두려운 마음을 쥐버리면 무서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만 가지면 전부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천사들이 약 4천억이나 되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만분의 1도 없고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위력자이시고 능력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밝히 말해줄 자가 있을까?

조건자가 나타나서 말할 것이고 아는 자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억울하게 죽이고 했지만 사실상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라고 성경에 써놓았느냐? 메시아가 오면 인간들이 무지해서 모르면 그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쓰여 있어.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지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지한 가운데 배척하는데 구원시키려면 그들 대신 죄인의 입장이 되어주고 배척하는 자의 죄를 메시아가 대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죄인 입장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무력으로 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열두 영도 더 되는데...”

‘열두 영’이라는 것은 열두 명 정도가 아닙니다. 일개 나라의 장관들, 국방부 장관, 육군 대장, 공군 대장, 이런 대장들만 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게만 명해도 “공군 사령관, 저거 팬던기 100대 몰고 가서 때려 부수고 와.”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두 영의 천사에는 병을 주는 천군들 사역자도 있고, 어떤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사명을 맡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일순간에 금방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군대장을 중심한 그 엄청난 수를 말할 수 없는 천군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면 너희들 일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멸하지.”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18만 5천명이 쫓아왔을 때 천군들을 보내서 썩 멸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에 군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천군들을 보내서 성 밖에서 썩 죽었지 않았습니까. 몇 명은 시범으로 살았다가 그 쓰린 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쓰린 꼴을 그 왕이 보게 만들고 조상 묘지에 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전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다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조상님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조상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의 사람이 “때가 되었으니 죽어라.” 하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죽인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열두 영도 더 되는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즉시 멸하지만 내가 이미 기도를 해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께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마귀와 사탄이 있는지를 분명코 배우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오라고 했는지, 오늘 주일날 성 주주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였는지 겪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쓸어버렸습니다. 꼴을 안 보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아, 나도 교만하면 존재를 못하겠구나.’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봤습니다.

어떤 것이 교만인가? 교만이 많이 배웠다고 교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달동네 사람도 교만하고, 해동네 사람도 교만하고, 주권자도 교만하고, 아무 주권이 없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도 교만합니다.

교만이 오면 죄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쳐서 존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예 자신들이 교만하면 완전히 자신들을 미리 때려눕히고 심판도 하고 책망도 해야지 괜히 하나님이 수시로 천사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서 점점을 하는데 거기에 띄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본인이 교만한가 말씀을 듣고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 하는 자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 아예 성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성 밖은 신령한 세계를 두고 말한 것인데 그전에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일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관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섭리의 주관권, 구원의 주관권 그 안에서 볼 때 성 밖에 있다는 것도 됩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관권을 벗어나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성, 사랑의

성, 이상세계의 성에 들어움을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세계로 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성 밖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지옥세계나 음부 세계, 암흑의 세계, 거짓을 좋아하는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들을 그렇게 한다고 요한 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혀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한번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도 하나의 큰 병폐입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끼리 이제껏 했어도 별것도 아니던데...’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주권에 못 들어가 있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짓된 혀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바가 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참된 혀를 가져야 됩니다.

그 반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거짓된 혀가 아니고 참된 혀는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이나 형제들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행위가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 사탄은 거짓 하는 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북한일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 안 하니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거짓말 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북한의 문제를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가 대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침범 못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의로운 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케 해줍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이 자기 것이 없으면 확대시켜서 세계의 민족으로 보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자도 많이 있겠지만 보면 정말로 거짓되고 망령된 혀를 가진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싫어하는 민족이 되

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되겠습니까? 결국 가시밭길 위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사막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선인장이나 살고 가시나 엉겅퀴들이나 찔레나 사는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가 되는 자들은 그러합니다. 이래서 꼭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참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꺼림이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속으로 해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납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께 속 시원하게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것을 편지 쓰기도 했는데 그것을 다 못 읽어봅니다. 무조건 설교할 때 “하나님, 나 정말 거짓말 많이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에 대한 것은 너무 많아서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듯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때리고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눈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육신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이런 죄 없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주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벗어난 자다.” “옆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 나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사람을 극적으로 미워하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움을 받을 대상인가? 그럴 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받고 다윗도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워하는 편이 어느 편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편인가 선한 편인가 보십시오.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악한 편이 미워했지 선한 편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안 미워했습니다. 무죄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악한 편입니다. 선한 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이 복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이론들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를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감격하며 살지도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형식적으로 믿고 산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온전한 진리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확인하고 완벽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말씀을 외치니까 이단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느냐? 항상 모르는 자가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형식으로 믿었다니까. 형식으로 믿고 외식으로 믿고 어떤 이권주의에 의해서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골 때리네요.”

“골만 때리냐? 있는 대로 다 몸동아리를 때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친 진리를 믿고 따라오는 보다 선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진리를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몇 명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 때 예수님은 싫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하는 그 하는 일들은 또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인데 어떻게 열매는 좋다고 하고 나무는 나쁘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골 때리는 애기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싫어하고 다른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뿌려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이방인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면 꼭 나를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잡아서 꺼꾸러뜨리고 창피를 다 줄꼬, 온갖 세상 창피를 다 줄꼬 하며 나를 미워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에 태양이 멈추었다고 했는데

태양이 안 멈추었다. 태양이 가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것은 시간적 문제다. 자기가 시간을 2시간에 할 것을 1시간에 빨리 했으면 1시간이 멈춘 것이 되는 것이고, 10시간 할 것을 1시간에 날으면서 했으면 9시간 동안 태양이 멈춘 것으로 착각이 되는 것이다. 착각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이 그러하다.” 여러분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때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되잖아.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억지소리 하는 사람에게 가서 깨우쳐주고 속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갈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가라.”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시원하게 따져주고 “아, 내가 몰랐다.” 그 소리 듣고 와서 ‘에이, 속시원하다.’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그 날 못 간 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를 믿고 하나님이 일을 못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가 본정신이 돌아오면, 성장하면, 지능이 발달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의로운 자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화가 난다, 혈기가 난다, 못 참겠다 하고서 쫓아가서 실컷 따지고 나중에는 무릎 꿇려 놓고 나중에 가서 “아, 내가 몰랐다.” 하면 “으휴 속 시원하다.”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급하니까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길 먼저 해야 됩니다. 악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왜 거기에 따라서 발 맞춰 갑니까? 몰라서 씹어대고, 몰라서 방송하고, 몰라서 인터넷 쳐대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중심합니까? 하나님이 명한 길이나 부지런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한 일이나 부지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봐라. 내가 한번 명하면 저렇게 되지 않느냐.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명한 일은 하지 않고 속상하다고

그놈들에게 따지러 가서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갔다.” 하면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쫓아가서 “너 때문에 나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도망친 사람을 쫓아다니며 잡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기 당했어요. 하나님 믿지 았다가 내가 사기 당하고 큰 곤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애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결국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내가 돈을 사기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내 잘못을 회개하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간구해야지 사기 치고 도망친 놈한테 가서 해봐야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 친 놈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민족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큰 일꾼들한테 맡겼더니 돈을 떼어먹고 대통령들이 달아나 버리고 돈 가진 사람들이 달아나고 하니 쓰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 당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우리 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뺏았더니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측은히 보시고 마치 모래알만큼 조금만큼만 축복해줘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마 어마 어마한 것입니다. “재는 바른 길로 가니까.” 하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손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손해를 끼치니까 그에게 가서 있어봤자 속만 더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든지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일개 가정에서 형제한테 사기 당했으면 계속 쫓아다녀봤자 형제가 더 때리고 싸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나갈 길이 없이 물리면 걷어차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서 “내가 사실상은 부모님이 모르게 돈을 모아서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졌는데 형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께 의논 못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형도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고 나도 자식인데 아버지 생각하고서 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잘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너도 때렸구나. 나도 때렸는데... 알았다.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목매달아 죽지 마.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해도 악한 놈들한테 “피값 내놔라. 손해 값 내놔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혹시 악한 자들이 의이 앞에 와서 “내 손해값 내놔라.” 하면 불쌍히 여기고 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의인을 손해 끼쳤는데 쫓아가서 그거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나중에 가서는 “뭐? 죽고 싶은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죄한 자를 피흘리고 손해끼치는 것을 아주 못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들도 의인들을 해를 못하면 밤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잔다고 잠언을 통해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의인들을 해하는 악인들을 보시고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족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무죄한데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피 값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의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2천년 동안 피값을 담당했는데 “2천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라오면 모르지만 그 때도 안 믿으면 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괜히 누명 씌우고 악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악한 궤계를 꾀하는 마음들, 악으로 달려가는 발목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궤계를 꾀하고 마음에 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행실들, 그런 발은 너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궤계를 따라가지 말고 악한 자의 꾀임을 좇지 말기 바랍니다.

깨끗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감정이 있으면 거기에 개똥을 집어넣어 놓고 “이 똥을 봐라. 이렇게 더러운데 먹냐. 이게 무슨 약수냐?” 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이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봐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씻어내고 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까? “개똥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됐다. 나쁜 놈이 앙심먹고 개똥을 집어넣었다. 집물이 깨끗하다고 하려고.” 그러면 후에 가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놈 정말 나쁜 놈이구먼.”

우리들도 나쁜 자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이성으로 누명 씌우고 각종 각색으로 누명 씌우고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웅달샘에다 개똥을 집어넣은 격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깨끗한 물을 판 사람은 압니다. “개똥 그놈들이 또 집어넣었구먼.” 금방 퍼내면 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론에 방송하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론도 안 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와 하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와 합니다. 시장에서 누가 “이 옷 정말 좋더라.” 하면 다 와서 사갑니다. 알고 보니까 가짜면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좋다고 해서 시작됐지? 나는 왜 거기에 속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자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한 존재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술을 좇고 꾀하는 자들, 남을 악으로 꾀어서 의인을 나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십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마음에 싫어하시고 실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 특히 거짓증인들, 법정에 가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들 이들이 정말로 거짓된 자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서 많이 싸워봤지 않습니까. 꼭 보면 법정에 가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법관들이 빨리 분별을 못하고 먼저 이야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봐두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 법관들까지 심판해 버리십니다. 거짓말하는 거짓증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거짓말 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증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봤다. 예수님이 나쁜 짓을 했다. 창녀촌에 들어가서 살았다.” 거짓증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무섭게 하시는 육 칠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가 잘 지내는데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 섭리를 오려고 하는 자를 악평해서 못 가게 하고, 그 사람 나쁘다 해서 이간하는 자들, 나를 보고 “저 사람 나쁘다.” 해서 이간시켜서 못 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죄목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 우리 섭리를 이간시켜서 “아주 나쁜 단체다. 저 단체 나쁘다. 이단이다.” 방송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했지만 그래봤자 지금 제일 잘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벅차게 뛰고 달릴 것입니다.

금년도도 중고등부는 7천명 전도대회를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고등부들이 전도대회 하는데 여러분 전체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는데. 중고등부만 7천명 하나? 우리 장년부들도 엄청나게 할 것인데.” 장년부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국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캠퍼스들도 목표가 있지요? 또 각 분야들이 모두 목표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똑같은 날이 아니고 잔칫날이 다르니까 그 잔치에 밀어주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중고등부를 전도했으면 중고등부 전도대회에 밀어주고, 중고등부도 가다가 대학부 선배들이 있으면 대학부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니까 그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꼭꼭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자기 부서에 대학부는 대학부만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각 분야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자기는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사슴이 있으면 사슴을 잡아다가 자기는 토끼막 밖에 없으니까 사슴막이 있는 사슴 기르는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엇그저께 토끼를 잡아왔는데 토끼를 줌 가져가라.” 할 것입니다. 붕어를 잡으러 갔다 해도 상어를 잡았으면 상어 잡는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각각 모두 전도를 하되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중고등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면, 대학생들이 “이 시대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선생님, 제 동생들 데려와서 중고등부들 만들지요.”

“야, 중고등부 하지 말자.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 나도 길러봤거든. 10대들 기르기 너무 힘들어. 그 애들 기르다가 너희들이 대학부 사명 못하고 청년부 사명 못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청년부만 하자.”

“내 동생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동생만 데리고 와. 내가 반드시 교사 하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대개 형 말은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서로 바꿔서 해.”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학부들이 자기 동생 데리고

와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학부들이 지금 몇 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동생들 하나씩만 데리고 오면 몇 천 명이 들어옵니다. 자기 동생들 데리고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은이 사도도 보고했는데 동생을 말씀을 듣고 통과를 시켜 왔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사상으로 뒤집어지고 ‘하, 이것을 몰랐구나.’ 하더랍니다. 그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푸르르 하고 깨달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봐라.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뒤집어지니까 식구들도 모두 뒤집어진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뭐가 됩니까? 뒤집어지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들어붙은 사람이 뒤집어지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차이가 그렇게 큼니다.

그러나 잘못 뒤집어지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잘못 뒤집어지면 흑암으로 뒤집어져 버리고 잘못 뒤집어지면 마귀의 주관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섭리사에서도 잘못 뒤집어진 사람은 악평하는 데로 뒤집어져서 가서 악평하고 계속 악평합니다. 악평이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악평해봤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 죄값을 다 받으려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가지 말라고 우리 섭리사를 얼마나 이간시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열 마디 하면 이들이 백 마디 천 마디 해서 이간해서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길을 막는다면 연자땃돌을 매고 마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때도 나도 그랬으니 또 하라. 때가 지나가면 결국 의로운 자의 것이 된다.”

그래서 낙심치 않고 계속 했습니다. 10명, 20명 있을 때부터 했는데 계속 해서 100명 채웠고, 계속 해서 1000명 채우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도 하나 해 올 때까지 그 나쁜 말을 여러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열심히 전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꼭 선생님만 보고 만나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만 기쁨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기쁨

거리가 여러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사람들은 기쁨을 수만 가지나 주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프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하니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이 꿀을 먹어본 사람은 벌에 쏘이더라도 자꾸 꿀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꿀을 먹으면 벌에 쏘였어도 낫습니다. 한번은 내가 벌통에 가서 벌에 쏘였더니 꿀을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꿀을 먹으면 바로 쾅쾅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꿀을 나니까 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대의 위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우리가 치료되는 광선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말을 듣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치료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연단되어라. 단련되어라. 강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위대한 주와 더불어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주관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살도록 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원했던 것을 받았을 때도 또 곤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곤고하다고 그것만 따지지 말고 과거에 받지 못했을 때 몸부림치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인생이 살기를 원하나? 지금 나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내가 죽게 누구를 헐뜯고 방송도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전단지를 뿌리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놈들.” 그럴 것 같아도 그냥 “알았다.”고만 하십니다. 어느 때는 대답도 없으십니다. 저들이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있고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줘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죽겠으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환난 같은 것은 생각도 않고 그런 일만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줄줄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열심히

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시대를 뛰고 달릴 수 있지요? 좀 가르쳐줘요.” 하면 줄줄줄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다보면 걱정되는 일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크다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걱정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것이 있으니까 그러시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너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노는데. 인격도 변해야지 그까짓 것을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 너를 사랑하는 자만 너를 좋아하는 것이지 너를 사랑치 않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해야지.” 그러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할 자를 전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귀고 알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모두 원치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흠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흠어졌을 때는 너무 속이 아프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이 “흠어진 장소에 가서 뭐라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흠어진 장소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교회 만들었다고 보고했더니 “잘했다. 그 때 우리가 흠어진 것도 우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흠어진 다음에 좋게 되었느니 잘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십자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졌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한정한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무엇을 보고 따르는가 하면 선생님의 그런 것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선생님 웃으세요. 온 인류의 수십 개 나라 사람들이 우리러 보며 따르는데 뭐하러 인상을 쓰십니까. 좋아하지요. 옛날 선생님이 월명동 달뻘골에서 나뭇지게 짊어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듣고 선생님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살아야지요. 제발 일요일날 인상 쓰지 말고 설교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인상 쓰면서 하면 그 인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상 쓰지 말고 땅에도 인상 쓰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끼리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네 편끼리 조금 마음 안 들게 한다고 해도 성질내지 말고 꼭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천국같이 살아야 됩니다. 만들고 요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요리조리 요리조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이 제대로 되어서 맛있게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인생도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럭저럭 해서 살고 그럭저럭 살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많은 자료가 있는 곳으로 보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갇다 봐도 멋있게 삽니다. 환경이 멋없어도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조은이 사도가 선생님을 보고 평가하기를,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솔직히 정말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다 말하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게 삽니다. 어떤 환경에 갇다놓고 새처럼 새장에 갇다 놓더라도 재미있게 삽니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새를 새장에 갇다놓듯이 좁은 방구석에 있다고 불만했다고 해서 뭐가 기쁩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재미있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한 평 되는 방에다 갇다 놓으면 “아, 이견 그래도 감옥 보다 나으니까. 여기에서 뛰면, 제자리걸기를 하면 천리 만리라도 갈 수 있으니까.” 합니다. “아이고, 좁아서 나 운동 못하겠네.” 하면 제자리 뛰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날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희망있게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뛸수록 그 날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많이 해놓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시간에 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고 만드는 사람은 봐줘야 됩니다. 닭이 알을 낳고 품는 시간에는 가만히 품게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품어서 병아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간들을 주었으니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모든 자들, 우리는 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가, 우리끼리도 서로 교만한가, 우리끼리도 서로 거짓된 혀를 가졌는가, 우리끼리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끼리 악한 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끼리 거짓말 하며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섭리사 안에 우리끼리 그런 일이 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도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요, 아주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것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서 농사짓는 농부가 있는데 자기 밭이나 가라지 뽑고 잡초 뽑지 저 산에치까지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들밭에 있는 잡초들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놔두면 소가 뜯어먹고 때가 되면 푸르른 배경으로서만 끝나는데 자기 밭이나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냐. 만일 자기 밭 안에 잡초가 있으면 놔두면 안 되지. 산의 잡초 뽑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혹시 나쁜 거친 마음이 있으면 뽑아내고 거짓된 마음이 뽑아내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이런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섭리 주관권 안에서 거짓된 허가 있는가, 교만한 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주관권 바깥의 사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말씀하겠습니다. 많아서 외우지는 못합니다.

1. 인생은 여럿이 사나 혼자 사나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여럿이 있다고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안 된다.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런 잠언을 주셔서 뜨끔했습니다. 요즘에 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내 일이 머리가 안 아면 이것을 맡기겠는데...”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길래? 내가 할 일인데. 하나님의 묵시의 일을 내가 기록해야지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인생은 여럿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자기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여럿이 있다고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성서를 쓰고 책을 쓰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자꾸 피했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 했을 때 한 박자 느리게 하면 더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2.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렵게 가르치면 몰라서 아무 유익이 없다. 쉽게 가르치고 쉽게 살아나가게 하라.

이 잠언을 듣고 ‘내가 너무 어렵게 인생을 가르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도 인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온 10대들, 20대들,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데 어렵게 가르치면 몰라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쉽게 가르쳐서 쉽게 둥글게 둥글게 살아나가게 해줘라. 꿩 잡는 게 매다. 꿩 못 잡으면 매도 매가 될 수 없다.” 매는 매지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와 같이 인생을 쉽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주일말씀도 쉽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신입생들도 말씀 들을 때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 너를 악평하고 너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라. 만일 다투면 다투는 결과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께서 네게 향한 일들, 길들을 거기까지 못 가지 않느냐. 다투다 보니까. 그러니 손해지. 변론하지 말고 대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네게 명한 일들만 부지런히 해나가도록 하라. 다투어서 좋을 것이 없느니라.

4. 우리를 악평하는 자들을 대면하여 가르쳐주고 따져서 통쾌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유익이 아니다. 우리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에 큰 손해가 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길 일을 우리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 일만 해야 그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따져서 말해줬다고 악인들이 “아, 그렇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손해간 것을 배상해주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했습니다.

5. 사탄과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를 주며 뺏는다.

아무리 옆에서 욕을 해도, “저년 나쁘다.” “저놈 나쁘다.” “아이구, 병신 잘생겼는줄 아나? 니가 옷이 찢어졌네.” 해도 뒤를 쳐다볼 것 없이 부지런히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가 큰 사람입니다.

7. 농부가 씨를 뿌려 가꾸는데 논밭에나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지 산에, 들밭의 잡초를 뽑고 거리의 잡초를 뽑을 필요가 있느냐. 자기 주관권에 있는 잡초나 부지런히 뽑아라.

축소시키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잡초나 부지런히 뽑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겠다. 마음 밭에 엉겅퀴가 있는가, 가시밭이 있는가 보겠다. 만일 마음에 가시밭이 있고 엉겅퀴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불사름을 받을 것이다.”

그 죄만 불사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지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9. 악인들 때문에 분노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악인들은 모두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들이 하루 하루 돌아오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느냐.

10. 의인들이 악인들의 악평함을 변론하여 깨우쳐주는 것은 마치 나그네가 급히 먼 길을 가는데 해찰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해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져서 옳게 증거해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따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며 그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것은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가 해찰하는 것에 똑같다고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9절의 잠언의 말씀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두고 보아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9절에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인을 따라가는 자의 길은 사랑하느니라. 의를 싫어하는 자들은 엄한 경책을 받을 것이요, 경책을 싫어하는 자들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악인에게는 네 악화가 가득하리라.”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하게 안 살까? 자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고서는 악한 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살려야지 괜히 누가 이렇다 저렇다 했다고 거기에 성질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왕이 있는데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자네, 누가 이러쿵저러쿵하던데.” 했다고 “뭐? 누가?” 하면 왕이 쳐다보고 “저놈 봐. 내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꾀술한 자도 땅에서 나무 뽑듯이 뽑아 버리리라. 잡초 뽑듯이 뽑아 버리리라.”

잠언 4장 16절에 보면,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며 밤중에도 뛰어나가서 의인을 괴롭히는 연구를 하고 다닌다. 강포한 술을 마시고 역시 애어른을 몰라보고 한다.” 우리를 악평하는 자들도 그냥 고의적으로는 못하니까 술 먹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잠언까지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 육 칠 가지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금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수요일 제단에 다시금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까?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바로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즉시 좋아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며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라.” 누가 더 우리를 나쁘다고 하면 기어코 가서 옳은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원한을 푸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며, “다시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대상이 되리니 그렇게 되면 망하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섭리 안에서 잡초들을 뽑고 자기 관리를 부지런히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만 땅에 남아지고 의로운 자만 땅에 남

아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만 남아지고 나머지 악한 자들은 모두 뽑아 없애버리리라 했습니다. 믿고 섬기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흔히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얼른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안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때가 있고 우리를 해하는 악인들을 처리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날은 하루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날도,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날도 다 정해져 있으니 그 날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개 나라에 국정일이 정해져 있듯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은혜로 더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모두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일생을 두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잡초들, 교만함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며 거짓말하며 거짓 증거 이런 모든 오늘 말씀한 육 칠 가지의 그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케 해서 씨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림이 영원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빌었사오니 모두 그리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의로 채우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봉헌송을 하고 그리고 봉헌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시대를 발견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은 끝이 없으니 끝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200배, 300배 결실이 오고 완벽하고 영원하니 흔들림 없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뜻있게 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동네 살다가 별동네 살다가 해동네의 삶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거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잘 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각종 각색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파서 고통 받는 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 주시옵소서. 의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도하오니 강건케 되고 치료되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의와 공의가 함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살게 축복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뿌려라 했습니다. “많이 얻고 싶으면 많이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뿌리고 의롭게 뿌리고 복음으로 뿌리고 열심히 뿌려서 많이 거둬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뿌리지도 않고 많이 건기를 원하면 되겠느냐 했습니다. 많이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봐라. 너희 창고도 차고 넘치리라.” 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워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줄 테니까.” 그리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야지. 모든 사건은 산을 올라가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은 공통적인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워도 지키고 커도 지키며 모두 지키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자기 소망을 꺾지 말고 절대 믿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니 끝까지 믿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다가 꺾이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기로 약속했으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렇게 해주라.” 하심으로 내가 알았다고 했으니 이들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이들의 모든 경제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해결이 되며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행위대로 받아서 깨닫고 온전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세계 각 나라 모두 열심히 뛰고 달리고, 특히 미국은 지금 집회 중에 있습니다. 집회 맞으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해야 됩니다. 자기 민족적인 풍속도 있지만 풍속에 더해서 뛰고 달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국도 뛰고 달리고 한다고 하니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국도 세계 각 나라들이 전도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서 고생들을 하는 유학생들, 가정국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기억하니까 열심히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도 열심히 뛰고 달린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도 선교활동도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도 해주고, 선교 지원은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주되 실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전을 갖추어서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고 일본 같은 나라도 충성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선생님도 아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히 강물이 흘러가듯이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요즘에는 편지들을 서로 못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열심히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고 마치고 축도할 테니까 축도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젠 말씀을 듣고 모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 하고 일어난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총을 더욱 크게 더해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 처음 온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뿌리가 잘 박히고 하늘이 부른 바를 깨닫고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잘 가워서 위대한 생명들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쓰이는 귀한 시대의 거목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두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한창 들어가는 자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을 다스리며 가게 해주시고 악평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지런히 뛰고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충만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구름떼같이 계속 섭리사로 모여들게 해주시고, 의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일진대 가면 갈수록 역사가 커지고 번창케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으로 번창해 가게 축복해 주

시기를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열심히 뛰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고 말씀에 따라 열심히 가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이들에게 함께하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온 나라와 민족, 세계에 함께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수요일 제단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고 건강히 뛰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 안녕.